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4회, 고린도후서 13장, 결론 호소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4, 고린도후서 13, 결론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책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12:14에서 시작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곧
일어날 바울의 약속된 방문을 다룹니다. 바울은 돈이나 고린도 사람들의
소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가졌고,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자신을 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절하게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분열을 만들고, 교회에 분열의 정신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도덕적 무질서의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각 방문
중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독자들에게 그가 올 때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장을 읽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는 마지막이니라. 모든 사실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왔을 때 이미 말하였고,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아무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하고, 너희에게 약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강하신 그리스도를 구하니, 그는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향하여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너희를 향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살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우리 자신이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깨달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가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이 승인받은 자로 보이기를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승인받지 못한 자로 보일지라도 너희는 옳은 일을하기를 기도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진리에 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할 때 기뻐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일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있는 동안에 엄중함을 쓸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점차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생각의 방문을 계획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그는 생각의 방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장 14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의 사역의 기본 원칙과 일치하는 그의 미래 행동의 본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2장 14절에서 18절에 나열하거나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그들을 발견하게 될 도덕적, 영적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올 때, 그들의 상황이 요구하는 만큼 징계에 있어서 확고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의 사역과 관련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다시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13:1~10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의 마무리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학 이라고 부르는 것과 섞이고 제공됩니다 .

여기서 당신은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는 완전한 연설을 마쳤고, 정상적인 담론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코린토인들을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 즉 그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18절에서 하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사적 전략은 지금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법정 언어를 사용하며 , 증거 요구는 경고에서 이어지고, 1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적용으로 끝납니다. 다시 봅시다, 13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이제 세 번째이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겠느냐?내가 전에도 말하였고, 다시 말하노니, 내가 두 번째 왔을지라도 나는 떠나 있을 것이요, 지금 그들에게 써 보내는 것은 이러하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가면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아닌 것을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비록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5에서 10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사적 결론은 감정적 호소로 구성됩니다. 바울은 감정적 호소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좋은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인 호소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변호는 끝납니다.

고린도인들과의 완전한 화해는 처음부터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완전한 재회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자산은 사도로서의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1절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는 범인을 다룰 것입니다. 그는 어떤 혐의든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알다시피, 바울은 종종 두세 증인의 입에서 진실이 확립될 것이라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확인하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14년과 20~21년에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이 올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확실히 올 거야, 적어도 이번에는. 그는 전에도 왔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했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지.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나는 잘못된 범죄자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법적 원칙을 인용했는데,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로마 법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로마 법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9, 15의 규정은 단 한 번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막고, 거짓 증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이제 랍비 법학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신약은 교회 규율에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예.

이제 질문은, 바울이 공식적인 고발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교회 재판을 염두에 두었는가? 그는 법정을 열 것인가? 그렇다면 증인은 누구였는가? 몇몇 고린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증언했는가? 글썄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2절에서 경고를 반복합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두 번째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이전의 죄를 지었거나 계속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미리

말하노라. 지금 여기서 언급된 두 번의 방문은 아마도 2장 1절의 두 번째 고통스러운 방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그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12:21에 나오는 사람들을 확실히 언급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나는 관대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관대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전혀. 당신은 여기서 고대 전쟁에서 유래된, 패배한 적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 아끼지 않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벌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파문하고 사탄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했듯이, 그는 그들을 일시적으로만 교회 생활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3, 6장과 고린도전서 5, 9~1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멀리하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신체적 질병을 가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까? 이제, 이것들은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있으며, 우리는 바울이 의도한 징계 조치의 본질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롬 머피 오코넬은 적어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약 공동체가 그의 훈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들의 삶의 질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복음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안합니다.

제롬은 머피 오코넬이 폴에게 내리는 결정은 끔찍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폴은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은 폴에게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아니면 CK 배럿이 말했듯이, 그들은 사탄의 영역으로 다시 떨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제 안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영원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교훈: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도덕을 용납 합니까? 우리는 숫자에 너무 얽매어 스스로를 징계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요일 아침에 나타나신다면 이 사람들 중 몇 명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는 천 명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교인들의 도덕성, 삶, 행동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나와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 가지 간청도 없이, 당신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 가운데 성도, 더러움, 음행, 관능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람이 의로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때요? 글썄요, 그는 매우 정직한 도둑이라고 말하는 게 어때요? 그는 매우 정직한 도둑이에요. 그가 하는 건 도둑질뿐이지만, 그는 매우 정직해요. 그게 귀에 어떻게 들리나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바울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취한다면, 예수의 피가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도덕함도, 관능도, 불순함도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는 다툼, 질투, 분노, 화를 냄, 분쟁, 중상모략, 험담, 오만함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거룩한 험담이 없나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거룩한 험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너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네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네가 증거를 원한다면, 증거를 얻는다.

당신은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원하고, 나는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바울은 매우, 매우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원하거나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진정한 사도직, 카리스마, 세련된 수사학, 고양된 영적 경험, 삶과 사역에서의 승리주의, 약함이 아닌 기대되는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수사학, 고양된 영적 경험, 승리주의, 하지만 약함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 주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대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인들 사이에서 강력하셨지만, 바울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하는 데 약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다는 표시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사실 그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강한 손으로 범죄자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바울의 권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가능한 대리인입니다. 그들의 슬픔에, 그들은 그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약하지 않고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은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도 그와 함께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이 능력은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났으며, 사도적 권위를 통해 그가 행하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물론, 당신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알다시피, 이 경고를 보고, 그들에게 경고를 한 바울은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살피라고 촉구합니다. 나를 살피지 말고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당신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검사하는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실제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복수형인 너희 자신을 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펴보라. 그들은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방문할 때, 그는 그들을 심하게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요구했으므로, 그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들이 그의 간청을 거부할까봐 우려합니다.

그래서 5~6절에서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고린도인들에게 역전극을 펼칩니다. 강조해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야 한다고 씁니다.

검사하고 시험한다. 두 개의 다른 단어. 풀이 아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examine, perazo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 여기에서 try, test, 또는 trying도 나옵니다. 그리고 proof, documazo 를 사용하여 여기서 사실상 동의어임을 증명합니다.

단지 약간의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시험을 통해 무언가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그가 말하길,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후자는 무언가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판적 시험이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참된 신자라는 증거를 시험해야 한다.

124에서처럼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확실히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요점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형으로,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 개개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개인 안에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하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독자의 관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는 그들을 위한 회복과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신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들의 회복과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부 해석자들은 whom을 you로 사용하여 부정사의 직접 목적어로 삼았고, 우리나라 he,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현재 합의된 의견은 who가 무한대의 대상 주어라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의 기도의 기본 내용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맥락에서 잘못된 일과 옳은 일이라는 보완적인 문구는 바울이 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의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이중적 목적은 이 구절들에 의해 나타난다. 첫 번째는 그의 부정적인 목적을 말하며, 사람들이 바울이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의 사도적 진실성이 그의 세 번째 방문에서 입증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그의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고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8절에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실이 영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진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보세요, 우리가 아는 진실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이해해야 하지만, 진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는 진실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감히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이것은 진실이 주권적이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바울에게는 여기서 진실이 복음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고린도인들의 삶에서 눈에 띄게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그의 염려를 계속 표현하고, 9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함이라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5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경고를 한 후, 독자들에게 그가 아니라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험당하고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온전히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증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9절에서 그는 자신이 약할 때 기쁘고 그의 독자들은 강할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쓸 때 엄하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권세는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작별 인사를 하세요. 정리하세요. 제 호소를 들어보세요.

서로 동의하십시오. 평화롭게 살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열쇠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인들은 건강한 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처방전을 쓰고, 그들은 그것을 매일 복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매일 복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먹어요. 11절과 12절.

거룩한 열쇠로 서로 인사하세요. 모든 성인이 여러분을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사물을 정리하세요. 내 호소를 들어보세요. 서로 동의하세요.

평화롭게 살아라.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일일 복용량이다. 우리 회중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회중을 갖게 될 것이다.

분열이 줄어들 것입니다. 논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하세요.

내 호소를 들어라. 서로 동의하라. 평화롭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인사하세요. 그들은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의 호소를 들어보세요.

서로 동의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아마도 그들은 서로와 함께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도 함께 했을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랑과 평화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권능과 축복의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중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서로 동의합니까? 우리는 파별을 다룹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는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소수의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고, 이게 내가 한 말인데, 나는 그걸 듣지 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호소를 들어보세요. 서로 동의하세요.

알다시피, 바울은 바로 거기서 그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서로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함으로써 우정과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거나 처방전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충분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약을 먹을 수 있는 자원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자원을 지적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13절.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보다시피, 성도들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고, 성도들의 교제만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자원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축복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독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뒤집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아버지가 1위, 예수가 2위, 그리고 성령이 3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물들을 이리저리 뒤섞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요구에도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즉 우리에게 이해, 동정, 보살핌을 확신시켜 주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치료법을 적용하고 영적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바울의 동일한 축복을 청취자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우야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고린도후서 13, 결론 호소입니다.